

## 신라의 辰韓 정체성과 ‘馬韓-고구려’ 인식의 함의

윤 경 진\*

- I. 머리말
- II. 신라의 辰韓 정체성
  - 1. 신라와 진한의 관계
  - 2. 진한 정체성의 출현 배경
- III. ‘馬韓-고구려’ 인식의 함의
  - 1. ‘마한-고구려’ 인식의 출현 배경
  - 2. 삼한일통의식과 ‘辰馬’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신라가 三韓一統意識을 수립하면서 자신을 삼한의 하나인 辰韓으로 연결하게 되는 배경과 그에 상응하여 馬韓을 고구려로 연결한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7세기 전쟁 후에도 신라는 자신을 선행한 역사적 존재와 연결하지 않았으나 9세기에 진한을 역사적 정체로 삼았다. 이는 중대 왕실의 기원을 중국의 金日磾로 연결하던 것을 파기하고 내부 연원의 闕智로 대체하면서 집단의 연원도 선행한 역사에서 찾은 결과이다. 이것은 신라가 삼한

---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 kjyoon@gnu.ac.kr

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자신과 백제·고구려를 연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신라는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자료적으로는 마한과 백제를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진한이 마한에 부속되었던 사적의 연장에서 신라가 백제에 부속되었다는 인식이 유도될 수 있었다. 백제를 병합한 신라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 주제어

三韓, 馬韓, 辰韓, 三韓一統意識, 金日磾, 閼智

## I. 머리말

漢이 朝鮮을 공멸하고 四郡을 설치한 후 樂浪郡을 중심으로 주변의 外夷들을 범주화할 때 남쪽의 외이는 韓이라 총칭되었다.<sup>1)</sup> 그런데 韓은 내부적으로 언어와 습속이 다른 세 부류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이 馬韓·辰韓(秦韓)·卞韓(弁韓)이다. 이들은 ‘三韓’이라 총칭되기도 했는데, 삼한은 “韓有三種”이라는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한 내부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그런데 역사적 실체로서 삼한이 소멸한 뒤 중국에서는 외교 상대인 三國을 범칭하는 용어로 ‘삼한’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것은 삼국이 동질적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표상하여 이들의 갈등을 무마하는 외교적 수사로 활용되었다.

7세기 중반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공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신라만 남게 되었다. 신라는 이 전쟁에 대해 자신을 침구하는 외적을 평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삼한 인식은 수용되지 않았다. 삼국을 아우르는 역사적 동질성을 상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통일’이라는 의미도 수립하지 않았다.<sup>2)</sup>

그런데 9세기 신라의 체제가 동요하면서 7세기 전쟁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 헌덕왕 때 金憲昌의 난은 백제의 舊都였던 熊川州에서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신라가 전쟁 이전으로 회귀하는

---

1) 낙랑의 동쪽은 濊, 북쪽은 貊으로 범주화되었다.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韓濊는 이를 채용하여 고구려 남쪽과 동쪽의 외이를 나타낸 것이다(윤경진, 「중국·일본의 ‘三韓’ 인식에 대한 재검토 : 신라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木簡과 文字』 17, 한국목간학회, 2016a, 70~76쪽).

2) 이것은 신라가 7세기 전쟁으로 백제 영토에 대한 영유권만 확보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671년 작성된 『答薛仁貴書』에서 신라가 영유권을 주장한 “平壤已南 百濟土地”는 “평양이남이 곧 백제토지”라는 의미로서 신라가 확보한 영토에 고구려 땅은 포함되지 않는다(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b).

국가 분열을 전망하였다. 난을 진압한 후 신라 정부는 분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합의 이념이 필요하였고, 이로부터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게 되었다.<sup>3)</sup>

현전하는 자료에서 삼한일통의식은 문성왕 때 건립된 「聖住寺碑」에 처음 보이며, 경문왕 때 황룡사구층목탑을 개건하면서 작성한 「刹柱本記」에서 확립된 모습이 확인된다.<sup>4)</sup> 이후 나말려초에 작성된 고승 비문에는 삼한일통의식이 보편적으로 보여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 분열기에 들어서면서 삼한일통의식은 사회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를 제공하였고, 통일을 달성한 고려는 이를 체제 이념으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삼한일통의식의 역사적 전개에서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는 삼한과 삼국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당초 고구려는 삼한과 병존하던 국가였고, 신라 또한 자신의 연원을 삼한에서 찾지 않았다. 그런데 삼한일통의식이 등장하는 시기에 신라가 자신의 연원을 辰韓으로 연결하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었다.

본래 삼한은 한 내부의 ‘이질적’인 세 부류를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역사의식에서는 삼국의 ‘동질적’인 연원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삼국을 그중 하나로 연결하는 인식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중국 왕조가 동국을 가리킬 때 삼한 중 하나를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현상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고구려를 지칭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5)</sup> 삼국의 연원을 삼한의 어느 하나로 연결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3)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수선사학회, 2015a.

4) 윤경진, 「신라 神武-文聖王代の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新羅文化』 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b; 윤경진, 「신라 景文王의 통합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 9세기 三韓一統意識의 확립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1, 고려사학회, 2015c.

5) 조영광, 「7세기 중국인들의 對高句麗 ‘三韓’ 호칭에 관하여」, 『白山學報』 81, 백산학회, 2008;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이에 비추어 신라가 자신을 진한으로 연결한 것은 이와 다른 층위에서 선행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가 왜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체제 이념으로 제시된 삼한일통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한-신라’에 수반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마한과 변한으로 연결하는 인식도 나타났다. 그런데 ‘신라-진한’이 고정된 것과 달리 마한과 변한의 연결에서는 서로 다른 인식이 보인다. 崔致遠이 마한을 고구려로, 변한을 백제로 연결한 반면, 甄萱은 마한을 백제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삼한일통의식이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린 모습을 반영하지만,<sup>6)</sup> 동시에 그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최치원의 인식이 그의 개인적 생각인지, 아니면 당시 신라의 일반적 인식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따져볼 문제이다. 중국 사서에 고구려가 삼한과 병존한 것으로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구려를 마한으로 연결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삼한일통의식의 역사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7)</sup>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신라의 진한 정체성과 ‘마한-고구려’ 인식의 역사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신

6) 신라가 삼한과 삼국을 일대일로 대응시킨 것은 ‘진한-신라’를 중심으로 삼아 삼국을 하나의 실체로 설정하면서 이들을 통합한 신라의 위상을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강래, 「최치원의 고대 인식과 그 함의 : 일통삼한을 매개로」, 『孤雲學報』 2, 고운학회, 2004; 『삼국사기인식론』, 一志社, 2011, 170~182쪽). 한편 최치원의 해석에 대해 時宜에 편승한 가식적 서술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고(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韓國史研究』 141, 한국사연구회, 2008, 68쪽), 그럼에도 혼란스럽던 삼한과 삼국의 계승관계를 명확히 정립했다는 사학사적 의미를 지적하기도 한다(권덕영, 「고대 동아시아의 삼한-삼국 계승의식의 정립 과정」, 『역사와 경계』 99, 부산경남사학회, 2016, 67쪽).

7) ‘마한-고구려’ 인식은 신라의 진한 정체성에 연동된 것인 반면, 건원이 보여준 ‘마한-백제’ 인식은 후백제의 국가 성격에 비추어 백제의 역사의식과의 관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별고를 통해 따로 살펴볼 것이다.

라의 진한 정체성의 내용과 성립 배경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진한의 용례를 분석하여 신라의 진한 인식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배경도 알아볼 것이다. 왕조 국가의 정체성은 왕실(시조) 및 건국 집단의 출자와 연계되므로 여기서도 이러한 요소와 연계하여 접근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마한-고구려’ 인식이 출현하는 배경과 그것이 신라의 진한 정체성과 연계되어 삼한일통의식을 형성하는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신라가 자료적 근거 없이 ‘마한-고구려’를 내세운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감지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천착해 볼 것이다. 그리고 ‘진한-신라’와 ‘마한-고구려’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辰馬’의 개념을 통해 신라와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에 내재한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 II. 신라의 辰韓 정체성

### 1. 신라와 진한의 관계

9세기 신라는 7세기 전쟁을 통해 삼한을 하나로 합쳤다는 역사의식을 수립하였다. 삼국에 선행하는 역사적 존재로서 삼한이 설정되면서 삼한 각각을 삼국과 연결하는 인식도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자신을 辰韓으로 연결하였다.

신라의 출발인 斯盧國이 진한 소국의 하나였고, 지리적으로도 일치하기 때문에 진한과 신라의 연결성은 쉽게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한이 곧 신라인 것은 아니고, 신라가 처음부터 자신을 진한으로 인식하거나 선후관계로 파악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신라가 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한의 용례는 『삼국사기』 등 문헌 자료와 금석문 자료에서 모두 확

인된다. 그런데 문헌 자료는 후대에 편찬된 것으로서 편찬 시점의 인식이 투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작성 시기가 분명한 금석문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 자료의 용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진한 용례는 신라말 비문에서부터 확인된다.<sup>8)</sup>

① 辰韓京邑(聖住寺碑)

② 大哉佛日 有土皆周 盛乎法□ 簡方不流 辰韓酷尚(禪林院址弘覺禪師碑)

③ 終平二敵 永安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鳳林寺眞鏡大師碑)

①은 金立之가 찬술한 「성주사비」의 일부이다. 비편만 남아 있어 전후 문맥을 알 수 없지만, 뒤에 ‘京邑’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진한이 신라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현존 금석문에서 발견되는 진한 용례 중 가장 이른 것이다. 특히 이 비문에는 백제 때의 사적을 소개하며 당시를 “(三)韓鼎足”으로 표현하고 있어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신라는 분립하고 있던 삼국을 삼한으로 범주화하는 한편, 자신을 그중 하나인 진한으로 규정한 것이다.

②는 정강왕 때 건립된 「선림원지홍각선사비」의 말미에 있는 구문이다. 여기서 진한은 佛法의 전래 대상으로서 신라를 가리킨다. ③은 경명왕 때 찬술된 「봉림사진경대사비」에서 선사의 출신을 정리한 부분이다. 이 구절은 그의 선조인 김유신의 행적을 설명한 부분으로, 역시 신라를 진한으로 칭하고 있다.

이처럼 신라말 금석문에서 진한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신라가 진한에서 연원했다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진한으로 칭한 것이다. 자연히 이는 고구려와 백제 역시 삼한의 하나로 연결하는 인식을 유도하였다. 삼한으로서 포괄적 동질성을 설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각국의 기원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유지한 것이다.

③에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평정 대상

8) 이하 신라말 금석문 자료는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에 의거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전거를 밝히지 않는다.

이 되는 ‘二敵’은 고구려와 백제이다. 두 나라를 적으로 간주한 것은 연원적 동질성을 상정하는 것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김유신 개인을 평가할 때 고구려와 백제를 ‘적국’으로 간주하여 ‘평정’의 공업을 도출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서<sup>9)</sup> 체제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식과 층위가 다르다. 하지만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이 가지는 내적인 한계인 것 또한 분명하다.<sup>10)</sup>

비문에서 신라는 兎郡으로도 지칭되었다. 토군은 玄菟郡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본래 의미로 본다면 고구려로 연결된다. 그런데 신라는 四郡을 자기 역사로 수용하고 자신을 그 중 하나인 토군으로 설정하였다. 신라는 삼한일통의식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는 물론 그 범위에 있던 이전의 역사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수용했는데, 당초 삼한과 무관한 사군 또한 신라의 역사로 수용한 것이다. 그 중 현도군을 자신과 연결하였다.<sup>11)</sup>

‘진한-신라’ 인식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건립된 비문에서도 다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sup>12)</sup>

① 大師諱開清 俗姓金氏 辰韓鷄林人也(地藏禪院朗圓大師碑)

② 禪師法諱洪俊 俗姓金氏 其先辰韓茂族 兎郡名家(境清禪院慈寂禪師碑)

③ 其仁浼者 辰韓茂族人也(太子寺朗空大師碑)

위의 기사들은 禪師, 또는 비문 찬자의 출신이 신라 왕경임을 나타낸 것으로서 신라를 ‘진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9) 「聖住寺朗慧和尚碑」(890년 이후)를 보면 남해의 선조인 무열왕의 공업에 대해 “선조께서는 두 적국을 평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습을 바꾸게 하였다[先祖平二敵國 俾人變外飭]”라고 하여 비슷한 인식이 보인다.

10)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한국중세사학회, 2018a, 246쪽.

11) 신라는 본래 병합 대상이 아니었던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로 수렴하려는 목적에서 玄菟郡을 자신의 역사적 정체로 채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윤경진, 앞의 논문(2018a), 264~265쪽).

12) 이하 고려초기에 건립된 비문은 『譯註羅末麗初金石文』에 의거했으며, 개별적으로 전거를 밝히지 않는다.



‘진한-신라’ 인식은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었다.<sup>13)</sup>

이번에는 문헌 자료에 보이는 진한 용례를 살펴보자. 『삼국사기』에서 진한의 첫 용례는 건국 기사에 보인다.

이에 앞서 朝鮮의 遺民이 山谷 사이에 나뉘어 살며 6村이 되었다. … 이것이 辰韓 6部이다.<sup>14)</sup>

위의 기사는 신라의 건국 과정에서 혁거세의 즉위 이전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그 기반이 된 6촌을 ‘진한 6부’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진한은 6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라를 가리킨다. 『삼국유사』에서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6촌이 있었다[辰韓之地 古有六村]”<sup>15)</sup>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신라가 진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수립된 후 양자를 동일시한 결과로, 후대의 인식에 따라 서술된 것이다.

한편 혁거세 38년 기사에는 마한에 사신으로 파견된 瓠公에게 마한의 왕이 “진한과 변한은 우리의 屬國인데 근래 職貢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sup>16)</sup>라며 힐책하는 기사가 있다. 직접 신라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진한은 신라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런데 호공의 답변에 다음 내용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二聖이 처음 일어나 人事가 닦이고 天時가 조화를 이루니 창고가 충실하고 人民이 겸손합니다. 辰韓遺民으로부터 卞韓·樂浪·倭人에 이르기까지 경

13) 진한 정체성을 수립한 시기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까지 포괄한 존재라는 점에서 ‘진한’이 삼한을 대신하는 의미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포괄적 인식의 사례가 분명치 않은 반면, 왕경인을 표현할 때 진한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는 점은 신라가 삼한일통의식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백제·고구려와 연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1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 是爲辰韓六部.”

15) 『三國遺事』 권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16)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38年,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외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sup>17)</sup>

위에서 二聖은 혁거세와 알영을 가리키는데, 호공의 설명은 이들이 즉위한 후의 국가 상황을 말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辰韓遺民”이라는 표현이다. 진한유민은 뒤의 변한·낙랑·왜인과 함께 신라에 복속한 부류로 열거되고 있다. 변한 등이 병존 상태에서 신라에 복속한 것이라면, 진한은 신라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遺民’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 진한은 신라에 선행한 역사적 존재로 나타난다. 마한왕이 신라를 진한으로 칭한 것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호공은 신라와 진한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한에 대한 신라의 인식이 형성되는 초기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왕과 호공의 논변에 대해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사람이 秦의 난리에 힘겨워 東來한 자가 많았다. 마한의 동쪽에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진한과 雜居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점차 융성하니 마한이 꺼려서 이렇게 질책한 것이다.<sup>18)</sup>

위의 설명은 秦의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마한 동쪽에 정착했는데 “진한과 雜居”하다가 강성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맥대로라면 진에서 유입된 인구는 진한과 구분되며, 신라는 진한이 아니라 이들과 잡거하던 유망민을 그 연원으로 한다. 마한왕이 신라를 진한의 범주에 넣어 말한 것에 맞서 호공은 양자의 차이를 말한 것이고, 『삼국사기』는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연원을 진의 유망민으로 해석한 것이다. 호공이 말한 진한유민은 바로 잡거하던 유망민(신라)에게 복속된 토착민이다.

17)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38년,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自辰韓遺民, 以至卞韓樂浪倭人, 無不畏懷.”

18)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38년, “前此, 中國之人, 苦秦亂, 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 寢盛, 故馬韓忌之, 有責焉.”

이러한 내용은 중국 사서의 설명을 변형한 것이다. 『三國志』 東夷傳에는 진한과 관련된 다음 두 기사가 보인다.

- ①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耆老가 대대로 전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옛날 망명한 사람들이 秦의 노역을 피해 韓國으로 오니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떴어주었다”라고 한다.<sup>19)</sup>
- ② 弁辰은 진한과 雜居하는데 역시 성곽이 있다.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고 언어와 法俗도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을 제사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다.<sup>20)</sup>

①에서는 진한을 유망민의 이주로 형성된 존재로 보고 있다. 『後漢書』는 이들을 “秦之亡人”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유망민이 이주하여 진한이 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망민이 진한과 ‘雜居’했다는 『삼국사기』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②에서는 변진(변한)이 진한과 잡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망민의 진한 잡거는 이로부터 유도된 표현으로 짐작된다.

결국 『삼국사기』의 설명은 秦에서 유입된 존재를 진한에서 신라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곧 신라를 진한과 구분하는 인식에 기반하면서 진한을 흡수한 신라에게 진한의 연원에 대한 설명을 가져다 넣은 것이다.<sup>21)</sup>

마한왕과 호공의 대화에 대해 『삼국사기』가 중국 사서의 내용을 변형해 부연한 것을 보면, 대화 내용이 『삼국사기』 단계에서 생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곧 대화 내용은 신라의 기록을 채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가 처음 진한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에는 자신의 연원을 진한과 구분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양자를 동일시하는 인식으로 전환했음을 알 수

19) 『三國志』 권30, 魏志 烏丸鮮卑東夷傳,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20) 『三國志』 권30, 魏志 烏丸鮮卑東夷傳,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21) 이와 함께 혁거세 즉위 기사에는 진한의 기원을 ‘朝鮮遺民’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朝鮮은箕子가 分封된 조선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사서에서 ‘진’의 유망민이라고 한 것을 ‘조선’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이 실제 신라에서 형성된 인식인지는 의문이 든다. 다만 ‘조선’이 ‘진한’을 대신하여 신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경우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있다.

중국 자료에서도 신라를 진한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圓光의 출신에 대해 7세기 중반에 찬술된 『續高僧傳』 기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22)</sup>

唐의 『續高僧傳』 제30권에 실려 있기를, “신라 皇隆寺의 승려 圓光은 俗姓이 朴氏로서 본래 三韓에 살았는데, (삼한은) 변한·진한·마한으로서 원광은 곧 진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sup>23)</sup>

위에서 원광의 출신을 “本住三韓”으로 설명한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삼국을 삼한으로 범주화한 데 따른 것이다. 원광은 삼국 병립기의 인물로서 전기의 찬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삼한 각각을 열거하고 원광을 진한 출신으로 정리하였다. 곧 신라와 진한을 동일시한 것이다.

7세기 초반에 편찬된 『梁書』 新羅傳에도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라고 하여 신라의 기원을 진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보인다.<sup>24)</sup> 이것은 삼국의 연원을 삼한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진한이 마한의 동쪽에 있다는 사서의 기록과 신라의 위치가 일치한 데 따른 귀결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이 신라에 영향을 주면서 신라가 진한을 자신의 정체로 채용하였고, 진한이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신라의 진한 정체성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초 삼한은 신라의 역사인식 대상이 아니었다. 韓은 낙랑의 남쪽에 있던 부류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던 범주로서 그 내

22) 『속고승전』은 梁의 慧皎가 편찬한 『高僧傳』을 이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서문에 645년에 집필을 끝낸 것으로 나온다.

23)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唐續高僧傳第十三卷載, 新羅皇隆寺釋圓光, 俗姓朴氏, 本住三韓, 卽韓辰韓馬韓, 光卽辰韓人也.”

24) 반면 『舊唐書』와 『新唐書』는 신라에 대해 “弁韓之苗裔”로 설명하였다. 이는 『唐會要』에서 “新羅者 本弁韓之地”라고 서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에서 신라의 기원을 진한이 아니라 변한으로 제시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삼한 인식의 출발이 되는 『삼국지』에서 진한과 변진의 24국이 변진 항목에 함께 열거되어 있고 그중 에 사로국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인한 혼선이 아닐까 한다.

부에 서로 이질적인 세 부류가 설정되면서 삼한의 개념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중고기 신라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구성하면서 外夷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韓을 채용하였다. 이는 황룡사구층목탑의 연기설화에 보이는 九韓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sup>25)</sup>

한편 역사적 실체로서 삼한이 소멸한 후 중국 왕조는 삼국으로 분립해 있던 동국의 역사적 연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삼한’을 채용하였고, 외교 과정에서 이들의 역사적 동질성을 표상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백제 병합 후 신라는 당과의 외교 과정에서, 혹은 중국 사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삼한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게 되었다.<sup>26)</sup>

삼한의 역사를 접한 신라는 그중 자신과 공간적으로 접치는 진한에 주목하였다. 처음에는 자신과 진한을 이질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신라는 중국 사서에서 진한의 연원을 설명하던 秦의 유망민을 자신의 연원으로 가져오고, 대신 진한은 토착 집단으로서 신라의 성립과 함께 그에 복속한 부류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이후 신라가 진한에서 나왔다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이후 진한은 신라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다음에는 신라가 진한을 역사적 정체로 채용하는 배경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진한 정체성의 출현 배경

중대까지 신라가 선행한 역사적 존재와 자신을 연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혜공왕 때 완성된 「聖德大王神鍾」을 보면, 세계의 탄생과 수반된 신라의 형성을 말하고 있을 뿐,<sup>27)</sup> 역사적 계승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진한 정체성의 수립은

25) 윤경진,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a, 117~125쪽.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27)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b, 192~194쪽.

하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나타난 변화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계기 내지 배경으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시조 출자 관념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왕조 국가의 정체성은 시조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한 건국 집단의 연원과 국가를 건설한 지역의 두 가지 층위에서 설정된다. 토착적으로 발생한 국가라면 양자가 일치하겠지만, 유이민 집단의 이주와 건국이라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면 양자가 나뉘게 된다.

고구려 시조 朱蒙은 天孫이라는 혈통의 신성성과 별개로 부여 출신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가 숭배한 夫餘神은 주몽의 어머니 柳花이다.<sup>28)</sup> 유화는 부여에서 주몽을 낳았고 부여에서 사망하여 그곳에 사당이 마련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29)</sup> 그가 부여신으로 숭배된 것은 고구려의 부여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건국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은 수립되지 않았다. 주몽은 선주민 국가인 松讓의 沸流國을 복속시키고 나라를 세웠다. 비류국은 복속 내지 결합 대상일 뿐,<sup>30)</sup> 고구려에 선행한 정체로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곧 고구려의 역사의식은 시조 및 건국 집단의 출자에서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라의 진한 정체성은 건국 지역의 역사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특히 전술한 호공의 서사에서 진한이 신라에 복속한 것으로 인식된 것은 고구려와 비류국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점에서 진한 정체성의 수립에는 신라와 진한의 관계 설정의 변화, 곧 역사의식의 변화가 상정된다. 이 변화를 추동한 매개로 주목되는 것이 시조 출자 관념의 변화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는 卵生의 천손 관념을 띠고 있지만, 토착의 사로 6촌을 기반으로 즉위하였다. 脫解는 외부에서 유입된 존재이지만 기존 집

28) 『北史』 권94, 列傳82, “有神廟二所, 一曰夫余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 夫余神之子, 并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29)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4년 8월, “王母柳花, 薨於東扶餘, 其王金蛙, 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30) 유리명왕 때 송양의 딸을 妃로 들인 것에서 결합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2년 7월,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

단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흡수되는 맥락이다. 閼智의 금궐 설화 또한 내부 연원의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중대 왕실은 이와 다른 형태의 시조 출자 관념을 수립하였다. 무열왕계는 기존 진평왕계가 불교를 매개로 혈통의 신성성을 내세운 것에 대응하여 왕통을 중국과 연결하여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에게 少昊金天의 후예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서술이 있다. 소호금천은 黃帝 軒轅의 맏아들 摯를 말한다. 아울러 중국식 종묘제도를 도입하고 무열왕에게 太宗의 칭호를 追上함으로써 始祖(太祖) 星漢의 정통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sup>31)</sup>

중대 초기에 건립된 비문에는 이러한 관념이 투영되어 있다. 「金仁問碑」를 보면 소호금천에 대한 서술 다음 행에 太祖 漢王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sup>32)</sup> 이는 한왕(성한)이 소호금천의 후예라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김인문은 무열왕의 아들이자 오랜 기간 당에서 宿衛하며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 기원설은 중국의 성씨 문화 및 고대 신화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김인문의 在唐 활동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文武王陵碑」에는 소호금천과 함께 金日磾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다. 다음은 비 전면의 5행과 6행 부분이다.

[5] (결락)君 靈源自 夙繼昌基於火官之后 峻構方隆 由是克 (결락) 枝載生英 柁  
侯祭天之胤 傳七葉以□(결락)

[6] (결락)焉□□十五代祖星漢王 降質圓穹 誕靈仙岳 肇臨 (결락) 以對玉欄 始  
蔭祥林 如觀石紐 坐金輿而(결락)<sup>33)</sup>

비문 중 “火官之后”는 소호금천을 가리킨다. 火官은 神農氏로서 黃帝

31)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고려사학회, 2013.

32)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Ⅱ)』, 金仁問碑, “(결락)□五之君, 少墟分星于而超碧海, 金天命 (결락)□太祖漢王, 啓千齡之□聖, 臨百谷之(결락).”

33) 『譯註韓國古代金石文(Ⅱ)』, 文武王陵碑.

가 그의 아들로 되어 있으므로 계보가 자연스럽게 소호금천으로 이어진다. “桞侯祭天之胤”은 漢武帝 때의 인물인 金日磾를 가리킨다. 『漢書』에 따르면 그는 흉노 休屠王의 태자로서 한 무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휴도왕이 金人을 만들어 祭天한 사적으로 인해 무제로부터 金姓을 하사받았다고 한다.<sup>34)</sup>

곧 김씨의 기원은 소호금천과 김일제의 두 가지 설이 있었던 것인데, 소호금천은 신화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출발은 김일제에서 찾게 된다. 그리고 김일제가 시조 성한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7葉’의 계승이 매개되고 있다[傳七葉]. 7엽 계승에 대해서는 문무왕의 7대 계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35)</sup> 그런데 앞에 김일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문무왕에 대해 시조 성한은 15대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 7엽은 김일제와 성한의 연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4행의 “傳七葉”에서 6행의 “十五代祖星漢” 사이에는 김일제로부터 7엽 계승 후 문무왕의 15대조인 성한이 출현하는 맥락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7엽 계승은 『한서』에서 김일제로부터 7세가 內侍로서[七世內侍] 번영을 누렸다는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흥미로운 점은 김씨 시조인 미추왕의 선대 계보 또한 7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미추왕의 선대 계보는 關智-勢漢-阿道-首留-郁甫-仇道-味鄒로 정리되어 있다. 이때 대수 산정에서 葉을 따지는 것은 本代도 포함된다.<sup>36)</sup> 이에 준하여 김일제부터 미추왕까지 계산하면 엽수로는 8엽이 된다. 따라서 이를 7엽에 맞추어 이해하면 김일제와 알지가 겹치게 된다.

김일제와 알지는 모두 ‘金’씨의 출발이라는 공통성을 가진다. 결국 신

34) 『漢書』 68, 列傳38 金日磾, “金日磾夷狄亡國, 羈虜漢庭, 而以篤敬宿主, 忠信自著, 勒功上將, 傳國后嗣, 世名忠孝, 七世內侍, 何其盛也, 本以休屠作金人爲祭天主, 故因賜姓金氏云.”

35) 文晔鉉, 「新羅 建國 說話의 研究」, 『大邱史學』 4, 대구사학회, 1972, 66쪽.

36) 고려 국왕은 대수를 ‘葉’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태조=1엽’부터 산정된다. 『大覺國師文集』을 보면 “時後高麗十三葉在有之八年 歲次庚午”라는 구문이 있는데, 13엽은 13대 국왕인 宣宗을 가리킨다(『大覺國師文集』 권1, 新編諸宗教藏總錄序).



라 김씨 왕실의 시조로서 미추왕의 선대는 김일제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7세 계보가 만들어졌고, 다시 김일제 대신 알지를 설정했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박씨와 석씨의 시조로서 혁거세와 탈해는 설화의 주인공이자 본인이 왕위에 올랐다. 김씨의 경우 당연히 첫 국왕인 미추왕에 대한 설화가 형성되는 것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추왕이 아니라 그 7대조인 알지의 설화가 전승된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렇다면 알지의 금궐 설화는 당초 미추왕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것이 알지 설화로 전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미추왕(성한)의 금궐 설화를 가지고 있던 김씨 왕실은 시조의 계보를 김일제와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 5명의 계보를 만들어 넣었다. 중국 역사로 연결한 만큼 신비적인 금궐 설화는 덮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계보가 다시 김일제와 분리되면서 그 자리에 김씨 왕실의 시조로서 알지를 설정하였고, 금궐 설화도 그에게 적용되었다.<sup>37)</sup> 또한 왕위에 오른 것은 미추왕이지만 알지부터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증하기 위해 탈해왕 때 太子로 冊立되었으나 파사이사금에게 양보했다는 서사가 만들어졌다.<sup>38)</sup>

그렇다면 김씨 왕실의 계보가 김일제에서 분리되어 알지를 시조로 수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변화가 무열왕계 안에서 나타날 여지는 없으므로 하대 왕실의 수립과 관련될 것이다.<sup>39)</sup> 하대 왕실은 무열왕계를 대체하면서 시조 계보에 대한 관념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sup>40)</sup> 이에 무

37) 해궁왕대 五廟制 개혁으로 太祖大王이 始祖大王으로 칭호가 바뀌면서 소호금천 기원설이 퇴조하고 알지 전승이 재부상하였으며, 경문왕대 소호금천 기원설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文基,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합, 역사교육학회, 1999).

38) 『三國遺事』 권1, 奇異 金闕智 脫解王代, “擇吉日, 冊位太子, 後讓於婆娑, 不卽王位.”

39) 『삼국사기』에 언급된 대로 신라인이 소호금천의 후예라는 인식은 신라말까지 유지되었지만, 이는 중대 왕실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알지 설화와 별개로 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40) 하대 왕실의 출발인 원성왕에게 烈祖 묘호를 올린 것, 애장왕대 不遷之主였던 무열왕과 문무왕을 別廟로 옮긴 것 등은 무열왕계와 차별화하는 행보를 잘 보여준다.

열왕계가 계보의 기점으로 삼은 김일제를 파기하고 내부 출신의 알지로 대체하였고,<sup>41)</sup> 알지에서 미추왕까지의 계보를 재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 연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왕실 혈통을 김일제와 연결한 것은 곧 국가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주몽이나 온조 형제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통상 시조의 移入에는 그를 따르는 집단의 이주가 수반한다. 그리고 토착민은 그와 융합하거나 지배 대상이 된다.

여기서 앞서 서술한 호공의 언급에 다시 주목해 보자. 그는 ‘辰韓遺民’이 신라에 복속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진한은 선주민이고, 신라 건국 세력은 이주민이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는 중국 사서에 진한의 기원으로 설정된 진 유망민을 신라 건국 집단으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이는 시조의 이입에 수반된 건국 집단의 이주를 국가 형성 단계로 소급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본기 서두에 진한 6부가 조선 유민으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진한과 신라를 구분하는 호공의 언급은 이보다 앞선 인식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신라 건국 집단의 이주를 상정한 내용은 중대의 중국 기원설과 맥이 닿는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조의 이주에는 건국 집단이 따라왔다는 인식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선행한 존재와의 역사적 연결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고구려가 부여 정체성을 수립한 것처럼 신라가 흉노나 秦을 자신의 정체로 삼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성덕대왕신종」에 드러나듯이 스스로 세계를 구성하였다는 전통적 관념을 유지하였고, 새로 인식된 진한은 지배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대 왕실은 무열왕계가 제시한 계보 관념을 파기하고 왕실의 연원을 내부로 되돌려놓았다. 따라서 시조의 이입에 수반된 건국 집단의 이주 또한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신라가 건국 지역에 있던 기존

---

41) 알지는 내부 연원의 시조라는 점에서 혁거세와 상통한다.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의 居西干 칭호와 관련하여 그가 처음 입을 열 때 “闕智居西干”이라고 했다는 전승은 양자의 서사가 혼용된 결과로 짐작된다.

집단을 계승했다고 간주하면 내부 출자설은 확고해진다.

결국 알지 전승의 수립은 다시금 지역 안에서 자신의 역사적 연원을 찾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한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신라는 진한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중국에는 진한이 신라를 나타내는 말로 정착하였다.

한편 신라가 역사의식의 전환 과정에서 진한에 주목 내지 선택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매개고리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7세기 이래 당의 삼국 내지 신라에 대한 인식이다. 삼국 각각은 당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이들의 각축에 부담을 느낀 당은 처음에 화해를 종용하는 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당은 삼국이 모두 삼한에서 연원했다는 역사적 동질성을 내세워 화해의 당위를 제시하였다.<sup>42)</sup>

이러한 인식은 8세기에도 이어졌다. 성덕왕 때 당이 보낸 조서에는 “三韓善隣”<sup>43)</sup>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는 당이 삼국에 이어 신라까지 지속적으로 삼한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접한 신라 또한 삼한을 자신의 연원으로 수용할 단서가 마련된다. 물론 독자 연원에 대한 인식이 강고한 상황에서 이는 중국의 일방적 표현을 넘기 어렵지만, 신라가 선행 역사에 주목하게 되면 이것을 수용할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덕여왕 때 『晉書』가 들어온 점이다. 이전에 신라가 중국 사서를 가져와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삼국사기』의 중고기 관련 기록에서 중국 사서의 내용이 인용된 점을 들어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후대에 전기 저술 과정에서 윤색한 것이다.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서의 도입과 이해는 생각하기 어렵다.<sup>44)</sup> 이에 비추어 『진서』의 도입은 신라가 중국 사서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을

42)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11년, “至如海東三國, 開基自久, 并列疆界, 地實犬牙, 近代已來, 遂構嫌隙, 戰爭交起, 略無寧歲, 遂令三韓之氓, 命懸刀俎.”

43)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30년 2월.

44) 윤경진,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文字』 22, 한국목간학회, 2019.

것이다.

『진서』에는 진한과 신라의 연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진한이 삼한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韓에는 마한·진한·변한 세 부류가 있다고 한 뒤, “진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으며 동서가 바다를 한계로 한다[辰韓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라고 하였다. 이 구문은 『삼국지』의 동일 구분을 채용하면서 ‘韓’만 ‘辰韓’으로 바꾼 것이다. 『삼국지』에서는 세 韓을 열거한 후 “辰韓은 옛날의 辰國이다[辰韓者 古之辰國也]”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채용하며 서두의 ‘한’을 ‘진한’으로 고친 것이다.

『진서』는 ‘辰王’도 ‘辰韓’으로 바꾸었다. “진한은 항상 마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니 비록 대대로 이어져 왔어도 자립할 수 없었다[辰韓常用馬韓人作主 雖世世相承 而不得自立]”라고 한 것은 『삼국지』에서 “진왕은 항상 마한인을 세워 대대로 내려왔다. 진왕은 자립하여 왕이 될 수 없었다[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라고 한 것을 변형한 것이다.

이러한 『진서』의 시각이 뒤에 신라가 자신을 진한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 물론 지리적으로 신라는 진한 지역에 속하고 진한 소국의 하나로 사로국이 열거된 만큼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진한이 한반도 지역의 군왕인 辰王의 실체로 표현된 것은 신라가 진한을 역사적 정체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sup>45)</sup>

그런데 시조의 중국 출자설을 수립한 중대에는 이러한 중국의 삼한

45) 『晉書』가 한반도에서 삼국에 상응할 존재로 ‘고구려-현도군의 속현’과 더불어 ‘백제-마한’과 ‘신라-진한’을 꼽았으며,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았다면 신라 지배층은 백제통합만으로도 일통삼한이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김영하,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 :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韓國史學報』 56, 고려사학회, 2014, 17쪽). 그러나 『진서』에는 ‘마한-백제’나 ‘진한-신라’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삼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가 『진서』의 내용을 통해 일통삼한의 인식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후대에 자신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진한을 채용하는 자료적 토대가 되었고, 이것이 삼한일통의식의 준거를 제공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인식이나 사서에 보이는 삼한의 실체에 대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신라 건국집단은 이주민이고 진한은 복속민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다시 진한을 자신의 역사로 수렴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 하대 왕실은 알지 전승을 구성하면서 선행 집단을 자신의 역사로 수용하였고 이에 진한을 자신의 정체로 채용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라의 진한 정체성이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라는 당의 외교 문서를 통해, 그리고 당에서 도입된 『진서』 등 사서를 통해 자신에 선행한 역사적 존재로서 삼한 내지 진한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무열왕계가 자신의 연원을 漢代의 김일제와 연결한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삼한으로 연결하는 의식은 수립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국가의 연원을 직접 중국으로 연결한 것도 아니었으며, 독자적 세계의 형성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진한이 신라와 지역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진한을 지배 대상으로 설정하는 과도적 인식이 나타났다.

그런데 하대 왕실의 수립과 함께 중대의 김일제 출자설이 파기되고 내부 연원의 알지 전승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알지 출현의 역사적 토대로서 선행한 정치체에 대한 계승의식이 대두하였고, 그 결과로 진한 정체성이 수립되었다. 삼한이 역사적 연원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담은 것이라면, 진한은 그 안에서 공간적 연결성 및 삼한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는 ‘一統三國’의 준거로서 삼국을 포괄하는 삼한의 정체성을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역사적 연원을 진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마한·변한과의 구별 인식 또한 분명하였다. 곧 일통의 근거로서 삼한과 자신의 정체로서 진한이 병존한 것이다. 이때 신라는 진한 정체성에 상응하여 마한을 고구려로, 변한을 백제로 연결했는데, 다음 장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 Ⅲ. ‘馬韓-고구려’ 인식의 함의

#### 1. ‘마한-고구려’ 인식의 출현 배경

신라가 삼한을 삼국 공통의 역사적 정체로 삼아 일통의 당위를 유도하는 한편에서 자신의 연원을 진한으로 설정함에 따라 마한·변한과 고구려·백제를 연결하는 인식도 나타나게 되었다. 삼한과 삼국을 선후관계로 연결한다면 마한은 백제와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사로국이 진한 소국의 하나였던 것처럼 백제국 또한 마한 소국의 하나였고, 신라·백제의 상대적 위치도 진한·마한과 같은 구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는 마한을 백제가 아닌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이것은 잘 알려진 崔致遠의 글에서 나타난다.

옆드려 듣건대 東海의 밖에 三國이 있으니 그 이름이 마한·변한·진한인데, 마한은 곧 고려이고 변한은 곧 백제이며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sup>46)</sup>

이 내용은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과 『삼국유사』에도 인용되어 있다. 여기서 최치원은 고구려를 마한으로, 백제를 변한으로 각각 연결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삼국지』 등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와 삼한은 병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덕여왕 때 『진서』가 들어와 이를 통해 삼국에 선행한 삼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진한 정체성을 수립한 이후에는 중국 사서에 보이는 삼한 관련 내용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마한과 변한 등이 등장하는 것은 이들을 인지한 바탕에서 국초 사적을 정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치원은 유학생으로서 당의 과거에 합격한 만큼 중국 사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졌을 것이다.<sup>47)</sup> 그가 “東海之外有三國”

46) 『三國史記』 권46, 列傳6 崔致遠,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47) 「上太師侍中狀」에는 삼국의 연원에 이어 수 양제와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고종

이라고 말한 것은 당이 삼국과의 외교에서 표방한 ‘海東三國’을 풀어써 표현한 것이다.

『舊唐書』에는 “高祖가 해동삼국이 예전에 원한과 틈이 있어 서로 攻伐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蕃附이므로 화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48)</sup>라고 한 기사가 보이고, 고종이 의자왕에게 보낸 璽書에도 “해동삼국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얻 지 오래되었고 경계를 나란히 하며 땅이 서로 맞물려 있다”<sup>49)</sup>라는 내용이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四海 천하관에서 중국[海內]과 외이[海外]를 구분하였고, 해외 중 동쪽을 해동으로 표현하였다. 당은 삼국과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이들을 ‘해동’이라는 범주로 묶어 인식하였다. 그리고 해동의 역사적 연원으로 지목된 것이 곧 삼한이다. 고종의 새서에는 삼국의 백성들을 “三韓之氓”으로 지칭하고 있어 해동삼국과 삼한이 같은 범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이 “東海之外有三國”이라 하고 이들을 삼한과 연결한 것은 이러한 당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치원이 찬술한 『鳳巖寺智證大師碑』에는 “백제에 蘇塗의 의례가 있었다[有百濟蘇塗之儀]”라는 구절이 보인다. 소도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마한 항목에 나오며, 『진서』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에 근거하여 최치원이 ‘마한-백제’의 내용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sup>50)</sup>

그가 실제 사서를 통해 마한과 백제의 연결 관계를 도출한 것인지, 아니면 구 백제 지역에 전승되던 소도를 언급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

---

때의 백제-고구려 공멸, 현종 때의 발해 공격 등의 사적이 열거되고 있어 관련 역사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帝王年代曆』을 편찬한 것에서도 그의 역사적 지식을 가늠할 수 있다. 최치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그간 다수의 연구가 있었는데, 특히 삼한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이강래, 앞의 논문, 2004; 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韓國古代史研究』 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김병곤, 앞의 논문, 2008.

48)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新羅, “高祖既聞海東三國, 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蕃附, 務在和睦.”

49)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百濟, “至如海東三國, 開基自久, 并列疆界, 地實犬牙.”

50) 김병곤, 앞의 논문, 2008, 52쪽.

다. 그런데 그가 소도를 불교 전래의 토대로 인지한 것은 『삼국지』나 『진서』에서 소도의 의례를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 것과 연결된다.<sup>51)</sup> 해당 사서에서 소도는 마한 항목에 나오므로 그가 현실적으로 ‘마한-백제’를 인지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마한-고구려’ 인식은 그가 중국 사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개인적 역사관이 아니라 당시 신라에 보편화되어 있던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신라는 자신의 연원을 진한으로 설정하면서 고구려에 마한을 연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인식을 수립한 것일까.<sup>52)</sup>

실상 중국 사서에서 마한과 고구려를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나 단서는 없다. 그렇다면 신라의 ‘마한-고구려’ 인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는 ‘마한-백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데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唐代에 편찬되어 신라에서도 인지했을 여지가 있는 사서를 통해 마한의 후신에 대한 인식 및 신라가 ‘마한-백제’를 수용할 수 없었던 조건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당 태종이 내려준 『晉書』(644)에서 삼국은 따로 입전되지 않았다. 東夷 항목에는 부여와 마한·진한이 입전되어 있고 변한이 함께 언급될 뿐, 고구려는 따로 항목을 두지 않았다. 이는 부여·삼한과 함께 고구려가 입전된 『삼국지』와 차이를 보이는데, 삼국이 정립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삼국에 선행한 존재로서 부여와 삼한만 채용한 결과로 보인다. 곧 고구려는 신라·백제와 더불어 현재의 ‘삼국’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빠진 것이다. 이는 당이 ‘삼국’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시각이

51) 『三國志』 권30, 魏志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晉書』 권97, 列傳67 四夷 馬韓, “其蘇塗之義, 有似西域浮屠也, 而所行善惡有異.”

5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찬자는 京畿 연혁 중 “古馬韓之域”에 대한 주기에서 최치원의 설을 定論이라 하면서 “이것은 최치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삼국 초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설이다[此非致遠創爲之說, 自三國初相傳之說也.]”라고 하여 최치원 이전에 존재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투영된 것이다.<sup>53)</sup>

한편 『梁書』(629)<sup>54)</sup>에서 삼국의 기원을 서술한 항목에 유의할 내용이 발견된다.

- ① 백제는 그 조상인 東夷에 三韓國이 있었는데, 마한·진한·변한이다. 변한과 진한은 각기 12국이고 마한은 54국이다. 大國은 만여 家이고 小國은 수천 家이니 총 10여만 戶로, 백제는 그중 하나이다. 뒤에 점점 강대해져서 여러 소국을 겸병하였다.<sup>55)</sup>
- ②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辰韓의 부류이다. … 또한 진한의 왕은 항상 마한 사람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갔다. 진한은 자립하여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이 流移한 사람이 분명하여 항상 마한의 제어를 받았기 때문이다.<sup>56)</sup>

위 기사에는 백제와 신라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우선 ①에서 삼한의 명칭과 國數 등에 대한 설명은 『삼국지』의 서술과 같지만, 그 뒤에 “百濟即其一也”를 첨부하였다. 일차적으로 “삼한 여러 나라의 하나”라는 의미도 되지만, 문장 구조로 보면 마한 54국의 하나로 귀속된다. 그 앞의 戶數 부분도 『삼국지』에서 마한 항목에 있던 것이다. 마한보다 변한과 진한의 國數를 먼저 적은 것도 이후 내용이 마한 항목에 있던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결국 『양서』는 삼한에 관련된 내용을 마한 중심으로 구성하여 백제

53) 당 태종이 신라에 『晉書』를 내려준 것에 대해 삼국이 立傳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성규, 「中國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전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2004, 51~52쪽). 그러나 신라도 입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 나라에 대한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그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며 그 연원으로서 부여와 삼한만 다룬 결과로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54) 『양서』는 陳代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당 태종 2년에 완성을 본 것이어서 태종의 명으로 편찬된 『진서』보다 해당 시기의 인식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5) 『梁書』 권54, 列傳48 諸夷,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余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 后漸強大, 兼諸小國.”

56) 『梁書』 권54, 列傳48 諸夷, “新羅者, 其先辰韓種也. … 又辰韓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系, 辰韓不得自立爲王, 明其流移之人故也, 恒爲馬韓所制.”

항목에 넣고 여기에 진한과 변한을 부연한 것이다. 실제 『삼국지』 이래 삼한에 대한 서술은 마한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낙랑과 접한 韓의 실체가 바로 마한이었기 때문이다. 진한·변한은 마한과 함께 낙랑의 남쪽에 있는 부류로서 韓으로 포괄되지만, 언어나 습속에서 차이가 있어 명칭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삼한에 대한 내용을 백제 항목에서 처리한 것은 삼한의 중심이 마한인 것처럼 그 후신으로서 백제가 삼국의 중심이라고 본 결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②에서는 신라가 진한에서 비롯되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이어 인용문에서 생략한 부분에는 秦 망명인 기원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삼국지』와 동일하다. 『양서』는 적어도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삼한에서 연원했다고 보고 있으며, ‘마한-백제’와 ‘진한-신라’의 인식 체계를 수립하였다.

『周書』(636)에는 “백제는 그 선조가 대개 마한의 속국으로서 부여의別種이다”<sup>57)</sup>라고 하여 마한과의 연결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구당서』 또한 이러한 인식을 계승하여 “본래 역시 부여의 별종으로 일찍이 마한의 故地이다”<sup>58)</sup>라고 적었다. 계통적으로는 부여와 연결되지만, 지역적으로는 마한에 속한다는 맥락이다.

그런데 중국 사서에는 마한이 유이민 집단인 진한에게 땅을 떼어주었다는 내용 및 진한이 마한의 제어를 받았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라가 연원적으로 백제의 附庸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만큼, 백제를 병합한 신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의식적으로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피해간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이해는 『隋書』(636)를 통해 뒷받침된다. 『수서』는 『양서』와 달리 삼국의 연원을 삼한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구려의 출자는 부여로, 백제의 출자는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연원에 대해 특징적인 설명이 나타난다.

57) 『周書』 권49, 列傳41 異域上,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余之別種.”

58)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百濟, “本亦扶余之別種, 嘗爲馬韓故地.”

魏의 장수 卍丘儉이 고려를 토벌하여 격파하니 沃沮로 도망했다가 다시 故國으로 돌아왔다. 남은 자들은 마침내 신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국과 고려·백제의 무리와 섞였고, 아울러 沃沮와 不耐, 韓穢의 땅도 차지하였다. 그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인데 바다로 도망하여 신라에 들어와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sup>59)</sup>

위에서 설명한 신라의 연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라를 형성한 집단의 기원이 고구려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관구검의 침입 때 동천왕이 옥저로 피난한 사적에 연결하여 당시 피난처에 남아 있던 사람이 신라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과거 진한의 秦 망명인 기원설에서 변형된 것이다. 진이 고구려로 바뀌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4세기 후반 신라가 고구려에 속국화되어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곧 이는 신라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고구려에서 신라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백제인이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sup>60)</sup> 이것은 진한이 자립하지 못하고 마한인을 왕으로 세웠다는 서술과 연결된다. 곧 마한·진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그 후신으로서 백제와 신라에 투영된 것이다. ‘진한-신라’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마한-백제’를 수용하면 마한과 진한의 관계가 그대로 백제와 신라의 관계로 연장됨으로써 백제인이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인식까지 유도될 수 있었다. 이는 신라의 정체성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삼국사기』에도 이러한 인식 구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된다.

瓠公을 보내 마한에 朝聘하였다. 마한왕이 호공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진한과

59)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新羅, “魏將卍丘儉討高麗, 破之, 奔沃沮, 其后, 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穢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其國.”

60) 바다로 도망하여 신라에 들어와 왕이 되었다는 설명은 조선의 準王이 南遷하여 마한의 왕이 되었다는 서사를 차용한 것으로 짐작된다(『後漢書』 권85, 列傳75, “初, 朝鮮王準, 爲衛滿所攻, 乃將其餘衆數千人, 走入海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변한은 우리의 屬國인데, 근래 職貢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의 禮에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sup>61)</sup>

위 기사는 전술한 호공 기사的一部分이다. 여기서 마한왕은 진한과 변한이 속국임을 주장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을 힐책하였다. 신라의 호공이 사신으로 갔을 때 마한왕이 한 말이므로 이는 신라의 행위를 말한 것이며, 그 바탕에는 신라가 진한에 포괄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진한이 마한의 제어를 받았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사적이 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한-백제’를 수용하면 신라가 백제의 제어를 받았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答薛仁貴書』에는 신라와 백제가 누대의 원수이며, 당이 백제를 다시 세우면 후손들이 백제에 吞滅될 것이라는 우려가 피력되어 있다.<sup>62)</sup> 이러한 우려에 비추어 보면 ‘진한-신라’가 ‘마한-백제’의 부용이었다는 인식은 백제의 신라 탄멸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신라는 ‘마한-백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대신 신라는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7세기 전쟁에서 신라는 백제만을 병합했기에 고구려와 관련된 사적은 신라의 역사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구려를 삼한에 넣어 삼한일통의식을 구성한 것은 관념적 차원의 문제였기에<sup>63)</sup> 마한-백제’ 인식과 같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료상 마한은 백제로 연결되는 것이 순리였지만, 신라가 이를 수용할 경우 진한이 마한의 부용이었던 사적이 그대로 백제와 신라의

61)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38년 2월,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6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新羅百濟, 累代深讎, 今見百濟形況, 別當自立一國, 百年已後, 子孫必見吞滅, 新羅既是國家之州, 不可分爲兩國, 願爲一家, 長無後患.”

63) 최치원이 「봉암사지증대사비」에서 불교 전래를 매개로 삼국의 사적을 묶어 이해하고 “옛날 웅기종기 삼국이 지금은 장대하게 일가가 되었다[昔之叢爾三國, 今也壯哉一家]”라고 설명한 것은 그 예이다.

관계로 연장될 수 있었다. 이는 백제를 병합한 신라의 정체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에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여 인식하였다.

## 2. 삼한일통의식과 ‘辰馬’

즉위 초 신라에 대한 尊王을 표방하던 태조 왕건은 경순왕 즉위 후 이를 파기하고 스스로 삼한의 주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는 태조 16년 後唐의 책봉을 통해 공식화되었다.<sup>64)</sup> 그리고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을 흡수하여 통일전쟁의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런데 전쟁기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은 신라의 것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신라의 삼한일통의식은 자신이 일통을 달성했음을 천명하는 데 본령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신라를 정당화하면서 후삼국 분립을 부정하는 맥락을 가진다.

고려가 신라에 대해 존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라의 일통삼한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 아래의 존재로 자임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존왕이 폐기되면서 신라의 일통도 부정되었다. 현실적으로 후삼국은 신라가 분열된 것이지만, 이념적으로는 7세기 상황의 유지 또는 재연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고려에게 삼한일통의식은 그렇게 나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당위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는 고려와 신라의 관계에만 적용되었다. 고려는 후백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곧 고려는 본원적으로 신라와 병립한 존재이지만, 백제는 이미 신라에 흡수된 존재로서 후백제의 수립은 신라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성종대 崔承老는 경애왕을 죽인 견훤의 행위를 “殺主”로 표현하였고, 이에 맞서 후백제를 응징하려 한 태조의 행위를 “不忘舊主”로 규정하였다. 이는 후백제를 신라에 부속된 존재로 보는 반면, 고려는 신라에서

---

64) 윤경진, 「고려의 對後唐 외교와 신라 : ‘尊王論’의 전개와 관련하여」, 『사림』 66, 수선사학회, 2018b.

분리된 존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sup>65)</sup> 다만 최승로는 신라 출신으로서 신라가 고려의 주인이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주체적 입장에서 고려는 신라에 포섭되지 않은 채 그 역사를 유지한 것으로 인식되었다.<sup>66)</sup>

또한 『고려사』 기록을 보면, 궁예는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것으로 서술한 반면, 견훤은 ‘南州’에 ‘叛據’한 것으로 설명하였다.<sup>67)</sup> 이 또한 후백제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려는 후백제의 정체성을 따로 상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후삼국은 고려와 신라의 병존으로 현상화되며, 삼한의 일통은 두 나라의 통합을 통해 달성된다. 이를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辰馬’이다. 진마는 진한과 마한을 합칭한 것으로, 이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공간을 나타낸다. 곧 그 자체가 일통삼한을 내포하는 개념인 것이다.<sup>68)</sup>

이 표현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태조 왕건의 즉위를 암시했다는 王昌瑾 銅鏡의 도참이다.

三水의 가운데 四維의 아래, 上帝가 辰馬에 아들을 보내어[三水中四維下 上帝降子於辰馬]

먼저 닭을 잡고 뒤에 기러기를 치니, 이는 운세가 一三甲에 가득함을 말한다.

65)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a, 120쪽.

66) 윤경진,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c, 167~173쪽.

67) 『高麗史』 권1, 太祖 總序, “時, 新羅政衰, 群賊競起, 甄萱叛據南州, 稱後百濟, 弓裔據高句麗之地, 都鐵圓, 國號泰封.”

68) 辰馬는 온조왕 25년 1首2身의 소가 나타난 것이 隣國을 병합할 징조라는 해석에 대해 온조가 진마를 병탄할 마음을 가졌다는 기사에도 보인다(『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5년 2월, “牛一首二身者, 大王并鄰國之應也, 王聞之喜, 遂有并吞辰馬之心.”). 그런데 여기서 인국은 마한을 말하며 실제 뒤이어 마한을 정벌하는 기사가 나온다. 그럼에도 ‘진마’라 한 것은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고, 진한이 마한의 부용이었다는 사적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후대의 진마와는 맥락이 달라 논외로 한다.

[先操雞後搏鴨 此謂運滿一三甲]<sup>69)</sup>

궁예가 재위할 때 唐의 상인 王昌瑾은 시중에서 청동 거울을 얻었는데, 여기에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위 기사는 그 명문의 일부로서 태조의 즉위와 통일을 암시한 도참으로 해석되었다.

辰馬는 태조가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서 삼한을 포괄하고 있다. 그 의미는 태조의 통일 과정이 “先操雞後搏鴨”으로 표현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雞’는 雞林(신라)을 나타내며 ‘操雞’은 신라 병합을 말한다. ‘鴨’은 압록강을 말하는 것으로, ‘搏鴨’은 북방 개척을 통해 고구려 구지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고려가 신라를 병합하고 구지를 수복함으로써 삼한의 일통을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구문에서 말한 ‘一三’은 셋을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統三(一統三韓)’과 같은 말로 추정된다.

최승로가 태조의 업적을 평가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구도가 나타난다.<sup>70)</sup>

遼溟의 거친 파도를 안정시키고 秦韓의 舊地를 얻어 19년 만에 천하를 통일하니 공은 더없이 높고 덕은 더없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sup>71)</sup>

위에서 遼溟은 遼河와 溟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이의 공간은 곧 고구려 구지이다. 이곳의 파도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고구려 구지의 수복을 말한다. 秦韓(辰韓)은 신라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한 구지의 획득은 신라 병합을 나타낸다.

한편 숙종 때 金謂碑가 南京 설치를 건의하면서 인용한 道詵의 「踏山歌」에서도 진마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69) 『高麗史』 권1, 太祖 總序.

70) 최승로의 평가에 나타난 역사계승의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a, 119~123쪽.

71)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於是, 值金雞自滅之期, 乘丙鹿再興之運, 不離鄉井, 便作闕庭, 遼溟之驚波, 得秦韓之舊地, 十有九載, 統一寰瀛, 可謂功莫高矣, 德莫大焉.”

松嶽山爲辰馬主  
嗚呼誰代知始終  
花根細劣枝葉然  
纔百年期何不罷

송악산이 辰馬의 주인이 되니  
아. 어느 대에 始終을 알겠는가.  
花根이 細劣하면 枝葉도 그러하여  
겨우 백 년을 기약하니 어찌 과하지 않겠는가.<sup>72)</sup>

위의 도찰은 송악산의 운세가 다했으므로 新花勢의 명당인 한강 북쪽에 도읍을 건설했어야 한다는 맥락이다. 여기서 “송악산이 辰馬主가 되었다”는 구문이 주목된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와 신라가 결합한 존재임을 표상한다. 이 원리는 高麗三京을 통해 풀어볼 수 있다. ‘고려삼경’은 고구려에 平壤城과 國內城, 漢城의 三京이 있다는 『隋書』의 기록에서 연원한다.<sup>73)</sup> 고려에서는 開京과 西京에 이어 성종 때 東京을 설치하면서 이를 표방했는데, 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결합을 통한 일통삼한을 나타낸다.<sup>74)</sup> 송악산이 진마주가 되었다는 것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점에서 ‘辰馬主’는 「高麗世系」에서 도선이 왕건을 지칭한 ‘統合三韓之主’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고려가 고구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마한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마한 정체성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신라와 통합되기 전의 고구려를 표상하면서 ‘진한-신라’와 대칭되는 것이다. 고려는 이들의 결합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역사적 명분은 ‘일통삼한’에서 찾았다. 고려의 ‘開國’이 왕건의 즉위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에 준거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sup>75)</sup> 이에 고려는 자신을 삼한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72) 『高麗史』 권122, 列傳35 方技 金謂碑.

73)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高麗, “都於平壤城, 亦曰長安城, 東西六里, 隨山屈曲, 南臨湨水, 復有國內城漢城, 并其都會之所, 其國中呼爲三京.”

74) 『고려사』 지리지에는 현종 21년 동경 복구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본래 동경을 설치하는 논리였다고 판단된다(윤경진,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2017b, 365~372쪽).

75) 윤경진,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포괄적 의미의 ‘삼한’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려가 자신을 마한으로 규정한다면 ‘진한-신라’와 대비하여 양자의 연원적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일통의 명분과 배치될 우려도 있었다. 이것은 신라의 진한 정체성이 가지는 본원적인 한계였다. 따라서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신라와 결합하여 삼한의 일통을 달성하는 구도를 수립했다라도 이를 마한과 진한의 연원으로 대체하지는 않았다. 위의 두 사례 모두 고려의 성립과 관련된 도참에 등장하며, 고려 일대에 걸쳐 그 연원을 ‘삼한’으로 포괄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한편 ‘진마’와 비슷한 개념 구조를 가진 ‘辰卡’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례를 몇 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辰卡의 구역은 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辰卡之區 汝惟全有]<sup>76)</sup>
- ② 그 사업은 桓文처럼 무겁고, 명망은 辰卡에 드높다.[其有業重桓文 望高辰卡]<sup>77)</sup>
- ③ 환문의 옛 사업을 세우고, 辰卡의 봉토를 위무하였다.[樹桓文之遐業 撫辰卡之全封]<sup>78)</sup>
- ④ 辰卡에 교화를 퍼니 위무하는 공업이 넉넉하고, 桓文의 공업이 무성하니 제후의 직분을 다하였다.[化敷辰卡 洽宣綏撫之功 業茂桓文 妙盡修輸之節]<sup>79)</sup>

이들은 모두 거란이 보낸 책봉문에 나오는 구문이다. ①은 정종 15년의 것으로, 고려의 영토를 辰卡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는 정종 5년의 것으로, 고려가 桓文[齊 桓公과晉 文公]에 상응하는 제후로서 진변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다. ③은 문종 9년의 것이고, ④는 문종 18년의 것으로서 역시 환문과 진변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

국학연구원, 2016c.

76) 『高麗史』 권3, 成宗 14년.

77) 『高麗史』 권6, 靖宗 5년 4월 辛酉.

78) 『高麗史』 권7, 文宗 9년 5월 辛酉.

79) 『高麗史』 권8, 文宗 19년 3월 己未.

여기서 진변은 ‘진한-신라’에 대응하여 ‘변한-고구려’를 함칭하여 현 고려의 영토를 나타낸다. 내용상 진마와 같은 것인데, 고구려를 마한으로 보느냐 변한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고구려를 직접 卞韓으로 지칭한 사례도 있다. 신종 2년의 책봉문에서 “箕子の 옛 구역이며 卞韓의 옛 땅이다[粵箕子之故區 寔卞韓之舊壤]”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당이 태조를 책봉한 글을 보면, “터전은 융성 하니 朱蒙의 상서를 뒤따랐고, 저곳의 군장이 되니 箕子が 변병이 된 자취를 이행하였다[基址克豐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sup>80)</sup>라고 하여 기자와 주몽이 짝을 이루고 있다. 기자는 중국에 대한 사대의 전통을 나타내고, 주몽은 고려의 정체성 및 영토를 나타낸다. 앞의 책봉문과 대비하면 기자는 환문과, 주몽은 진변과 대응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중국에서 작성한 책봉문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서 ‘진한-신라’와 더불어 ‘마한-백제’의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고구려를 변한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자연히 진한과 변한의 함칭인 진변을 통해 고려를 표현한 것이다.

물론 삼한 각각이 삼국에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양상도 있지만, 이는 삼한을 대신하여 쓰거나 각각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외교문서가 가장 공식화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면, 중국에서는 ‘진한-신라’, ‘마한-백제’, ‘변한-고구려’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진마’는 마한을 고구려와 연결한 신라 이래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이 글의 서두에서 군이 삼한과 삼국의 일대일 연결을 제시한 것도 이것이 중국의 일반적인 인식 내용과 달랐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편 ‘마한-고구려’ 인식이 변형된 사례로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대왕께서 朝鮮·肅愼·卞韓의 땅에 왕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송악에 성을 쌓고 제 長子를 성주로 삼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sup>81)</sup>

80) 『高麗史』 권2, 太祖 16년 3월 辛巳.

81) 『高麗史』 권1, 太祖 總序, “大王若欲王朝鮮肅愼卞韓之地, 莫如先城松嶽, 以吾長子,

위의 기록은 태조의 아버지 세조가 궁예에게 투항하면서 송악을 도읍으로 삼을 것을 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조선·숙신·변한은 동국(해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상 삼한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기존 삼한과 다른 명칭을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삼국사기』의 신라 건국 기사를 보면, 조선의 유민이 진한 6부를 구성했다는 내용이 있어 ‘조선-진한’의 연결 관계가 유도된다. 그리고 진한은 신라로 이어지므로 위의 조선은 ‘진한-신라’를 대체한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肅愼은 통상 중국 동북방 外夷의 원형으로서 挹婁와 勿吉·靺鞨 등의 前身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는데, 『삼국사기』에는 서천왕 때 고구려를 침공한 숙신을 정벌하여 복속시킨 기사가 보인다.<sup>82)</sup>

이러한 前史에 따라 숙신이 고구려를 표상하게 된 것인데, 다음 기사는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옛날 고려가 융성할 때 東西 여진 무리와 거란·발해의 백성들이 줄지어 복속했으니 모두 威德으로 이룬 것이다. 역대 임금들이 정성껏 받아들였기에 兩界의 땅을 확대하여 肅愼의 封疆을 회복할 수 있었다.<sup>83)</sup>

위 기사는 조선 세종 18년 변방을 제어할 방책을 모아 平安道都節制使 李藏에게 보낸 항목 중 하나이다. 회유책의 중요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고려가 융성할 때 여진을 비롯한 외방 부류들을 적극 포용함으로써 양계의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爲其主.”

82)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11년 10월, “肅愼來侵, 屠害邊民. …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83)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19일(癸未), “昔高麗之盛時, 東西女眞之俗, 契丹渤海之民, 絡繹降附, 皆威德之致也, 歷世之君, 推誠納之, 故能擴兩界之地, 以復肅愼之封.”

귀결을 “肅愼의 封疆”을 수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려의 영토 정책에서 수복 대상은 고구려 구지이다. 따라서 고려가 양계의 영역을 확대하여 숙신의 봉강을 회복했다는 것은 결국 고구려 구지의 수복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말한 숙신은 고구려를 대신하여 그 영역의 연원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세조가 말한 숙신 또한 고려에 선행한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은 卞韓은 백제를 가리킨다.

진한과 마한을 조선과 숙신으로 고쳐 부른 것은 고려중기 역사의식의 변화와 관련된다. 국초 이래의 역사의식은 고구려 계승자인 고려가 백제를 병합한 신라를 흡수함으로써 삼한의 일통이 달성되는 구도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편찬을 전후하여 고구려를 고려와 분리하여 선행한 삼국의 하나로 귀결시켰으며, ‘일통삼한’은 고려가 기존 삼국의 역사와 영역을 아우름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였다.<sup>84)</sup>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신라에 부속된 존재로 제외되었던 백제가 온전히 고구려·신라와 병존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삼국의 연원을 표상할 때 진한과 마한을 그대로 열거하면 ‘진한-신라’와 ‘마한-고구려’의 결합이라는 이전의 인식이 환기될 수 있다. 이것은 고려와 신라의 기원이 이질적이라는 인식을 유도함으로써 삼국의 연원을 나누지 않고 삼한으로 포괄한 새로운 역사의식과 충돌할 수 있었다. 이에 진한과 마한을 조선과 숙신으로 대체함으로써 삼한 각각이 삼국으로 이어지며 연원을 달리하게 되는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다만 ‘변한-백제’는 기존의 인식에 포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결국 세조의 언급은 후삼국 분열 초기의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거기에 사용된 개념은 고려중기 이후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상 ‘마한-백제’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진한-신라’에 상응하여 ‘마한-고구려’ 인식을 수립하였다. 이는 ‘마한-백제’를 수용할 경우 진한이 마한의 부용이었다는 사적이 백제

84) 윤경진, 「고려중기 東神聖母의 재해석과 仙桃聖母」, 『한국문화』 9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를 병합한 상황과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7세기 이후 백제는 신라에 부속된 존재로 간주되었고, 신라를 대신하여 삼한을 일통한 고려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고려의 일통은 신라와 결합함으로써 달성된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진한과 마한을 합칭한 ‘辰馬’ 개념을 통해 표상되기도 하였다. 반면 중국의 책봉문에는 ‘마한-백제’ 인식에 기반하여 고려를 ‘辰卞’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진마 인식은 신라의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이질적 기원을 내포하며, 고려 건국와 관련된 도참에만 등장한다. 고려는 자신을 삼한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고 고려 일대에 걸쳐 ‘三韓’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 IV. 맺음말

9세기 신라는 자신의 연원을 辰韓으로 설정하는 한편 馬韓의 후신을 고구려로 이해하였다. 삼한은 삼국의 공통적 연원을 표상하며 일통의 역사적 당위를 제공했지만, 그 안에서 삼한과 삼국을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본원적 이질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고려가 자신의 연원을 삼한으로 포괄할 뿐 어느 하나로 연결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것은 두 시기 삼한일통의식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에 신라에서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배경과 함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성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출발인 사로국이 진한 소국의 하나였기 때문에 신라와 진한의 연관성이 쉽게 유추되지만, 신라가 처음부터 진한 정체성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현존 금석문에서 진한 용례는 문성왕대 건립된 「성주사비」에서 처음 보이며 이후 보편화되었다. 다만 왕경인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백제나 고구려와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온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진한의 첫 용례는 신라 건국 기사에서 사로 6촌을 진

한 6부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후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馬韓王이 신라 사신 瓠公에게 “진한과 변한은 마한의 屬國”이라고 하자 호공은 辰韓遺民이 신라에 복속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삼국사기』는 진의 유망민이 들어와 진한과 雜居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진의 유망민이 진한의 연원이라는 중국 사서의 설명을 변형한 것으로, 신라가 진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의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에서는 삼국을 삼한으로 범칭하는 한편 각국을 삼한 중 하나로 연결하는 인식도 보였다. 『梁書』는 신라를 “辰韓種”으로 적시하였고, 『續高僧傳』도 신라를 진한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舊唐書』 등은 신라를 弁辰으로 연결하고 있어 중국의 인식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진한에 대해 처음에는 지배 대상으로 인식하다가 삼한일통의식의 수립과 함께 자신의 역사적 정체로 수립하였다.

신라가 진한을 역사적 정체로 채용하는 것은 자신의 연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조 출자 관념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었다. 중대 왕실은 그 출자를 중국의 少昊金天과 흥노 출신 金日磾로 연결하였다. 소호금천은 신화 속 인물이므로 실질적인 출발은 김일제가 되는데, 그와 시조 星漢의 연결에는 7葉이 개재되었다. 7엽은 김일제로부터 7世가 內侍가 되었다는 사적에서 가져온 것이며, 關智로부터 미추왕(성한)까지 계보가 7대인 것은 이에 맞춘 것이다. 성한의 계보를 김일제로 연결하면서 중간에 5명을 추가하여 7대를 구성했으나 뒤에 다시 분리하면서 김일제 대신 시조 알지를 설정하고 미추왕의 금계 설화를 알지의 설화로 바꾸었다.

이 변화는 하대 왕실이 수립되어 무열왕계의 권위를 뒷받침하던 중국 출자설을 파기하고 내부 출자로 바꾼 데 따른 것으로, 국가 연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중대의 중국 출자설은 건국 집단의 이주라는 사적을 수반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진한은 그 지배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진한의 기원을 설명하던 秦 유망민의 서사는 신라의 기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시조의 이입에 수반된 건국 집단의 이주를 국가 형성 단계로 소급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 출자설을 파기하면서 진한이 신

라에 선행한 역사적 정체로 채용된 것이다.

진한 정체성의 채용에는 7세기 당이 삼국의 역사적 동질성의 근거로 삼한을 내세웠고, 전쟁 후에도 신라를 삼한으로 부른 것과 『진서』 도입을 계기로 중국 사서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진서』에는 진한과 신라의 연결은 나오지 않지만, 진한이 삼한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중국 기원설을 수립한 중대에는 이러한 중국의 삼한 인식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대 왕실은 알지 전승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사적을 수용하여 정체성을 수립하였다.

신라가 자신의 연원을 진한으로 설정하면서 마한·변한과 백제·고구려를 연결하는 인식도 나타났다. 고구려는 삼한과 병존하고 있었고, 자료상으로도 마한과 백제의 연결이 도출됨에도 신라는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였다. 이는 최치원의 글에서 확인된다.

최치원이 “東海之外有三國”이라고 한 것은 당이 삼국과의 외교에서 표방한 “海東三國”을 풀어쓴 것이며, 불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백제의 蘇塗를 언급한 것은 마한의 소도가 불교와 비슷하다는 설명을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마한과 고구려를 연결한 것은 이것이 신라에서 보편적인 인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한-백제’를 수용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

중국 사서에는 마한이 유이민 집단인 진한에게 땅을 떼어주었고, 진한이 마한의 제어를 받았으며, 마한인이 진한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백제인이 신라의 왕이 되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백제를 병합한 신라로서는 이러한 사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반면 7세기 전쟁에서 고구려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한을 고구려로 연결하면 ‘마한-백제’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신라의 진한 정체성은 ‘마한-고구려’ 인식과 결합하면서 ‘辰馬’의 범주를 형성하였다. 진마는 진한과 마한의 합칭으로서 신라와 고구려(고려)의 결합을 통한 삼한의 일통을 나타낸다. 백제는 7세기 전쟁을 통해 신라에 흡수되었고, 신라말에 수립된 후백제는 반역 정권으로서 독립성이 부정되었다. 고려의 일통삼한은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고려가 백제를 병

합한 신라와 결합하는 것으로 달성되었다. 다만 진마는 신라의 전통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표현으로, 고려는 고구려 정체성을 가짐에도 자신을 마한으로 제한하지 않고 삼국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삼한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진마는 고려 건국과 관련된 도참에서만 용례가 확인된다.

이와 함께 고려의 영역을 ‘辰卞’으로 표현하는 사례도 보인다. 이는 중국 사서를 통해 유도되는 ‘마한-백제’ 인식을 토대로 고구려를 변한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란의 고려국왕 책봉문에서만 보이며, 진마와 마찬가지로 고려가 자신을 진변으로 칭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고려사』에는 왕건의 아버지 세조가 궁예에게 朝鮮·肅愼·卞韓의 왕이 되려면 송악에 도읍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조선은 조선의 유민이 진한 6부를 수립했다는 서사를 통해 ‘진한-신라’를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숙신은 북방의 역사를 대표하는 범주로서 ‘마한-고구려’를 나타낸다. 이 표현은 진한과 마한을 그대로 열거할 경우 그것이 내포한 신라와 고구려의 이질적 기원을 환기하여 고려의 일통삼한과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와 분리된 새 왕조로서 고려가 삼국의 역사와 영역을 아우르는 의미의 삼한일통의식을 확립한 데 따른 것으로서 고려중기 이후의 인식을 반영한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梁書』 『周書』 『隋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唐會要』  
『大覺國師文集』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譯註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羅末麗初金石文』, 해안, 1996.

### 2. 논문

- 권덕영, 「고대 동아시아의 삼한-삼국 계승의식의 정립 과정」, 『역사와 경계』 99, 부산경남사학회, 2016, 37~73쪽.
- 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韓國古代史研究』 40, 한국고대사학회, 2005, 219~252쪽.
- 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韓國史研究』 141, 한국사연구회, 2008, 51~82쪽.
- 김영하, 「신라의 ‘통일’영역 문제 :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韓國史學報』 56, 고려사학회, 2014, 7~32쪽.
- 文暉鉉, 「新羅 建國 說話의 研究」, 『大邱史學』 4, 대구사학회, 1972, 1~52쪽.
-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고려사학회, 2013, 213~252쪽.
-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177~216쪽.
- 윤경진,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신라의 천하관」, 『東方學志』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95~131쪽.
- 윤경진,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143~179쪽.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수선사학회, 2015, 105~142쪽.
- 윤경진, 「신라 神武-文聖王代の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新羅文化』 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207~242쪽.
- 윤경진, 「신라 景文王의 통합정책과 皇龍寺九層木塔의 改建: 9세기 三韓一統意識의 확립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1, 고려사학회, 2015, 453~490쪽.
- 윤경진, 「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335~375쪽.
-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백제의 영토 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3~54쪽.
- 윤경진, 「중국·일본의 ‘三韓’ 인식에 대한 재검토: 신라 삼한일통의식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木簡과 文字』 17, 한국목간학회, 2016, 61~97쪽.
-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15~147쪽.
-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2017, 353~395쪽.
- 윤경진, 「고려의 對後唐 외교와 신라: ‘尊王論’의 전개와 관련하여」, 『사림』 66, 수선사학회, 2018, 57~99쪽.
-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한국중세사학회, 2018, 237~283쪽.
- 윤경진,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 文字』 22, 한국목간학회, 2019, 221~250쪽.
- 윤경진, 「고려중기 東神聖母의 재해석과 仙桃聖母」, 『한국문화』 9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125~155쪽.
- 이강래, 「최치원의 고대 인식과 그 함의: 일통삼한을 매개로」, 『孤雲學報』 2, 고운학회, 2004.; 『삼국사기인식론』, 一志社, 2011, 159~219쪽.
- 李文基,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합, 역사교육학회, 1999, 649~682쪽.
- 이성규,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2004, 11~52쪽.

조영광, 「7세기 중국인들의 對高句麗 ‘三韓’ 호칭에 관하여」, 『白山學報』 81, 백산학회, 2008, 127~153쪽.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211~257쪽.

Abstract

## The Jinhan Identity of Silla and the Meaning of ‘Mahan-Goguryeo’ Succession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study is the logical process of Shilla identifying itself with Jinhan(辰韓), one of the Three Hans(Samhan, 三韓), in the midst of forging the “Three Hans are one(Samhan Iltong, 三韓一統)” notion, while connecting Mahan(馬韓) with Goguryeo. Also discussed is the meaning of such discourse’s development.

Even after the war in the 7th century Shilla did not actively try to connect itself with its legacy predecessor, but did so after all in the 9th century, embracing Jinhan as its historical root and identity. Previously the origin of the Middle(中代) Family of Shilla Kingship was considered to be a Chinese figure named Kim Ilje(金日磾), but such notion was apparently abolished in favor of a new one viewing a Shilla brethren Alji(閼智) as its new founder, and the origin of the state itself was modified accordingly. This decision ironically suggests the existence of a perspective differentiating Shilla itself from Baekje and Goguryeo, when all the three Hans were supposed to be one, and so should be all the countries that came later on.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Shilla also identified Mahan with Goguryeo. Considering what had been said in historical texts, it would have been more logical to connect Mahan with Baekje instead of Goguryeo, but the history of Jinhan having been annexed by Mahan could lead to a historical image of Shilla being subdued by Baekje. In

reality it was Shilla which annexed Baekje, so such image was unacceptable. Hence, made was the connection between Mahan and Goguryeo instead of Baekje.

**keywords :**

Three Han Units(Samhan), Mahan, Jinhan, the “Three Hans are one” notion, Kim Ilje(金日磾), Alji(閼智)

